

::내가 매일 기쁘게 ::

:: 신앙에세이 ::

감사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있다. 공부도 잘되고, 건강관리도 잘되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학원일도 잘 돌아 가고 있다. 이런저런 사소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던 일들도 해결이 되었고,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고 있다. 거친 파도 위를 헤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지금은 잔잔한 호수 위를 건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다.

공부를 길게 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공부한지 10여 년에 얻은 첫 번째 수적이다. 한동안 살림살이가 팍팍해 공부를 잠시 미뤄둔 적도 있었다. 그리고 넉넉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오랜 시간 기도를 했었다. 감사하게도 요즘의 내 공간은 차고 넘친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내 생활들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 같아서 초조할 때도 많았다. '이러다 영영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불안한 시간도 있었다. 가르칠 아이들

이 없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은 아이들이 앉을 책상이 없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감사하네.'라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요즘 그 감사의 기도가 신음과 비명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흥얼거리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뼈다듯하게 시간을 쪼개어 움직이다 보니 육체가 곤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써 기억하며 감사할 이유를 생각한다. 비록 바쁘지만, 비록 몸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힘든 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를 드려본다.

‘주님,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꿀꿀거리는 돼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분복을 인정하고, 그 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임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한데, 마음으로 감사하기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나약한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의지를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데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4~5)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기록해본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전훈지

ppjee@hanmail.net

:: From internet ::

평강의 왕 예수

제 마음속엔 큰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옮겨갈 수 없는 잘 다듬어진 반석은 늘 저를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중심을 잡아주곤 하죠. 그 돌은 바로 반석(고전10:4)되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우리 삶이 쫄쫄 얼어붙고 심각해지는 이유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21일 작정기도를 시작한지 19일째인데 함께 기도해야할 일꾼들이 불참하니 마음이 상합니다. 담대하게 외쳐 설교하고, 지친기색 없이 씩씩하게 뛰어드는 주의 종들도 더러 상쳐받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 받길 원하는 종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사38:14) 부르짖어 기도하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양떼를 이끌어주길 기대했건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마음에 상함도 안타까움도 뜨는 해에 물러가는 아침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같이, 3일을 넘기지 않고 늘 나의 심령 속에서 부활하는 “평강의 왕”,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3년 전인가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아들과 통화하는데 “엄마. 왜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 “아무 일도 아냐. 걱정하지마라.”

파스한 봄벌에 겨울 끝자락 눈이 녹아내리듯 순간순간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살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는 늘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마28:9), “아멘! 평안하나이다. 평강의 왕 예수님 덕분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살롬!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말(言)의 心(심)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귀국 즉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며 어머니는 울먹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팔과 눈을 하나씩 잃었어요. 그와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글쎄다 아들이야.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쩌면 몇 달까지도... 그러나 평생 그럴 순 없지 않겠니?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그런 장애인을 언제까지나 함께 데리고 살순 없을 거야. 괴로운 집이란단.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의 이 같은 답변에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호텔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통화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씩 잃은 그 동료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한두 달은 몰라도 평생 같이 살면 괴로운 집이 되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절망이 되고, 누군가에는 살 소망을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마음(心)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 교단소식 ::

그 이름 예수



지난 3월 31일, 신도림 그린아트홀에서는 서울교회 중고등부 및 청년대학부가 연합하여 준비한 찬양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찬양제는 ‘그 이름 예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평생에 귀한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찬양제였다.

찬양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 ‘성령의

비가 내리네’부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비가 내려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성령의 사모함으로 인해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은혜의 강가가 된 데에는 워십, 기악, 싱어팀들의 합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찬양제 준비기간 내내 단톡방을 만들어 리더가 기도문을 올리면 팀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 내어 기도문을 읽고 선포했다. 또 찬양제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예수님만이 영광받길 간절히 바라며 매일 기도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예수’만이 높임 받는 찬양제를 준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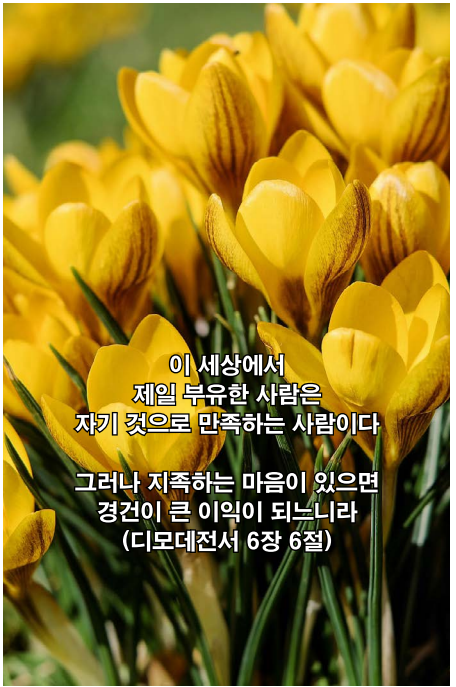
이날 감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신앙의 자존감을 높여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

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정확히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왜 뻣뻣하고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 다윗처럼, 바울처럼, 총회장 목사님처럼 예수님 편에서 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높이는 젊은이가 됩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소유한 젊은이들이여, 뻣뻣하고 당당하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4월 8일 (제94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개보다 못해서야

내가 기도원에 도착하면 나를 제일 반기는 것은 기도원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짱아다. 짱아는 기도원에 있는 진돗개 이름이다. 이 녀석은 내 차가 기도원에 들어서면 어떻게 알았는지 차 옆까지 뛰어 나와 마중하고 내가 차에서 내리면 경충경충 뛰면서 나를 반긴다. 너무 반가워서 주체를 못하는 느낌이다. 짱아는 내가 기도원 여기저기 단장하느라 일을 하러 다니면 계속 내 옆을 따라 다닌다. 내가 산에 오르면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하고, 녀석은 잠시 내가 그늘에서 쉬면 녀석도 내 옆에서 다리를 쭉 펴고 쉰다. 녀석은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제 집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 녀석을 보면서 생각이 깊다. 짱아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보호해준 것을 안다. 그래서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죄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 짱아가 나를 반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좇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고, 그 분을 좇고, 그 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개도 주인에게 그리할진대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진단해보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열도는 얼마인지, 나의 순종지수는 얼마인지 쟀해보라. 그래서 짱아보다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자. 개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결과를 몰고 다닌다

“나는 이번 춘계산상집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이곳 기도원에 오게 했습니다.”

이는 4월 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춘계산상집회 첫 날, 등단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일성이다.

부활절 다음 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은혜의 동산을 찾았다.

“여러분, 세간에는 생각의 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렘6:19).

생각은 마치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임신을 해도 처음에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아(女兒)인지, 남아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사55:8~9)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14:12).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압입니까? 파산했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처럼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파산한 욕을 갑절의 복으로 채우셨듯이 당신에게도 하실 것이고, 룻에게 더 좋은 가정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부디 부정적인 생각을 이 성산에 묻고,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반드시 영·혼·육의 성공을 쟁취하게 될 것



2018 춘계산상집회(4월 2일~5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男兒)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자라면서 눈이 생기고 손도 생기고 마침내 열 달 후면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이 땅에 여자, 남자로 태어나듯이, 생각의 씨를 뿌려도 처음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의 씨를 뿌렸든 긍정의 씨를 뿌렸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정의 씨는 부정의 열매를, 긍정의 씨는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의 생각을 품어 성공을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수태할 수도 있고, 경수가 끝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등,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입니다.”

목사님의 생각대로 목사님은 설교 후 병든 자들을 단에 끌어올려 일일이 안수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은 비행상이다. 믿음도 비행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상화되면 마침내 운명을 좌우함을 깨닫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다



산상집회는 영혼육의 녹을 제거하는 전지훈련이다



교단 목회자 및 정로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2~19)



도적맞은 네 꿈을 부활시켜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대속은 없었고,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그를 믿는 백성들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고전15:13).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망한 자입니다(고전15:19).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꿈이 있기에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핍박에 넘어지고, 세상 것에 현혹되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기하여 저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되찾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할 때 신앙이 부활되고 더불어 삶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요삼1:2).

신앙이 부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유정탄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듯,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신앙이 부활하게 됩니다.

패자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자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는 것이며, 부활의 심령이 될 때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꿈이 없는지 압니까? 이는 힘든 세상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죽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삶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부활하면 삶이 부활하고, 삶이 부활하면 꿈도 부활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기업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습니까? 심령이 부활된 자들이여, 이제 버렸던 꿈을 다시 부활시키십시오.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당신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는 말씀이 이루어져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바다매오, 혈투증 앓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들과처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
다. 도저히 꿈조
차 꿀 수 없
었던 자
들이
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
니
다. 그
러나 그들
은 원대한 꿈을
꿨고 이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꿨고, 12년 동안 앓던 병들었던 자가 나
음을 입었고, 자녀의 병 때문에 고통 하
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만나 그들의 신앙이 부활했기 때
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부활
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폭삭 망했을지라도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 거릴 것입니다. “네 주제에 그 꿈이 가능하겠냐?”, “네 팔자대로 살아라.”, “기도한다고 다 되면 아픈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게?” 라고 말할 겁니다. 원래 개는 개소리 하는 겁니다. 껌껌치 말고 꿈을 꾸고 도전하여 결과로 말해주면 됩

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젊은 사업가로 잘 나가던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들 그랬습니다. 대풍산업 이 사장이 망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 나타나면 혹시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들 숨었습니다.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다 교계에서 제명되었을 때 저는 남들 눈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구구화 하고, 주님이 꿈에 주신대로 명성을 얻을 거라는 꿈 말입니다. 그 꿈을 품고 늘 성령으로 기도

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그들 보란 듯
이 꿈을 이뤘습니
다. 지금은 그
들이 제발
만나달
라

고 ,
좀 도
와 달 라
고 난리입니
다. 전세가 역전
된 겁니다. 마치 9회

말 투 아웃 상황에서 만루 홈런으로 대역전을 일으키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던 자들,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던 자들이 입을 딱 벌릴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전승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를 십자가로 몰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은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고, 흑암의 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세력들과 사단의 왕국에서는 승리의 자축연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은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역전시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택하사 역전시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 받고 있는 우리를 택하사 역전시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니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자처럼 보이는 우리를 들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주게 하시며,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랬듯이, 한나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랬듯이, 임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삶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지, 무엇하러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확신 때문에 그런 온갖 위험과 고난도 다 무릅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은 내세적 부활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여 도적맞은 꿈을 부활시키시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의 의(義)

탓하지 말자

하나님은 부성(父性)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도 순종하셨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라고 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은 그가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니라”(요6:38~39)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보다도 위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의(義)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義)의 표준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의(義)에 이르는 믿음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靈感)으로 말미암는다(고전 2:10~11).

바리새인들은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

려고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의(義)를 버렸기 때문이다.

믿음에는 의(義)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교회에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보는데, 이는 믿음의 의(義)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수원에서는 수확한 과일의 상태를 일일이 검사하는데, 합격여부를 위해 먼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과일을 분류한다. 믿음에는 ‘의(義)’라는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공의(公義)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義)는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시 89:14).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15:6).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義)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불의(不義)로 여기신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누구나 승리의 면류관을 쓰길 원한다. 그러나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때로는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비하도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의 장애 때문에 믿음과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에게 면류관은 없다.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실패자들은 늘 상황을 탓하며 전진하지를 못한다. 부모 탓, 정책 탓, 시대 탓 등등...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던가?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시인하며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물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하

신다(롬8:28).

믿음의 선전 요셉을 보라. 그는 노예로 팔리든, 옥에 갇히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증거한다. 다윗을 보라. 형들과는 다른 아비의 처우에도 양치는 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아들인 압살롬의 쿠데타로 쫓길 때나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상황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다. 목사님을 보라. 집회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전기를 끊었더니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최루탄을 던져도 굴하지 않고 그 상황에 믿음으로 맞섰다는 것을 보고 듣지 않았던가?

이제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자.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진리의 학당 ::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15:50)

하나님의 부성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은총이니 이를 해 아래에서 받는 사랑이라 했다. 그러나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여덟 명뿐이었다는 사실과 오늘 이 세상에 목사도 많고 믿는 자도 많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눅18:8)?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마17:5). 아들은 아버지께 대하여 그 만큼 존경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오직 아들을 인해서 지음을 받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니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엡 1:3~11).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남에게 주겠는가? 성경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구상이며 실재이요 아버지께 대한 아들의 겸손한 순종을 기록했다.

공중은 새들이 나는 곳이고, 궁창은 별들이 있는 공간이다(창1:6). 이는 물질이 있는 우주 안의 하늘이니 물질계를

말한다. 이 우주를 싸고 있는 윗물이라는 우주 벽을 넘어 영계가 있다(창1:2, 히1:8). 영계하늘은 상속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시려고 만드신 곳이므로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골1:16).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골 1:13). 수십 년 신앙생활 하여 경건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니 곧 마귀다(유6). 흑암은 생명과 진리와 영광이 없는 곳으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임금이고(요 16:11), 장차 불못에 던져질 사단을 형벌할 처소이기도 하다(계20:10).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독점하신 나라가 함께 임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흑암의 세력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광야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때(마

4:1~11),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취었으니(마4:16)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요8:12).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이니(마12:28),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하라 말씀하셨다(마4:17).

지구 한쪽 끝 변방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우주적이고 영적이니,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시행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천군천사가 수종드는 역사로서 인류가 살고 하늘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늘의 왕에 의해서만 공개되고 실행되는 하늘나라에 의해 흑암의 지배자·사망의 세력자·거짓의 아버지인 세상임금이 무릎 꿇고 그 손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이 풀려나고(행10:38), 그 나라의 풍습과 부요와 제도가 이 땅에 실현된 것이니 마귀가 심판을 받음이며(요16:11), 마귀를 불못에 형벌하기 전에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는(눅 12:49~50) 하늘에 들어가(막16:19) 우리 처소를 준비하시는 길, 진리, 생명이

시다(요14:6). 그가 보내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니 하늘나라가 신약교회에 임한 것이요, 성령 받은 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세계 도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하늘나라의 실상을 변함없이 나타내고 있다(요14:12~13, 막 16:15~18).

진리 없는 곳에 활개 치는 마귀는 세상 풍습, 우상, 불신앙, 미신, 전쟁, 질병, 가난으로 제 종 삼으려 하지만(엡2:1~3) 권세 있는 새 교훈과(막1:27) 인내로써 박멸한다(히10:36).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마24:14)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요, 첫째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살전4:16~18) 천 년이 차기까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다가(계20:6) 백보좌 심판 후에(계20:11)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계21:1~5).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진리와 함께 영으로 살자.

박덕규 목사